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다

차 영 미 수녀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병원 병원장



많은 이들이 그러하겠지만, 수도자로서의 나, 더불어 병원에 근무하는 나의 존재는 늘 인간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겨울의 초입에 발을 들여놓는 시기가 되면 더욱이 계절병처럼 이런 종류의 문제로 마음과 몸앓이를 하게 됩니다.

바라보면 가을은 노란 은행잎뿐만이 아니라 곱게 채색된 단풍잎들, 세상이 온통 유채색들의 장관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푸른 하늘에 맑은 눈물 자국 같은 구름들이 흘러 다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연의 변화 속에 위령성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느끼는 것은 스산한 초겨울, 바람 부는 슬프고 애절한 죽음을 그리는 11월이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가을을 지나 그 아름다운 옷을 야깁없이 벗어 버리려는 겨울을 맞이하는 시간에 위령성월을 준비한 듯합니다.

호스피스를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자면 두려움과 고통, 혼란과 분노 등의 혼돈상태에서 자신의 근원자리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안식으로의 전환, 세상에서의 수고에 대한 평화의 보상이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호스피스활동이란 내외적인 평화를, 환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느 글에서 평화에 대하여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붉은 아침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를 때의 장엄함이나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에 내 온 몸과 마음이 흠뻑 젖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가히 희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욕망도, 갈등도, 미움도, 걱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편안하고 평화롭고 순수하고 밝고 훈훈한 기운에 잠기는 것이었다.

저도 사별을 경험한 이로써 어려움을 깊이 안고 있었던 시간에 위의 글과 같은 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떠나신 분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살아 있는 이처럼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위로 떨어지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푸르고 깊은 바다 위를 물들이며 붉고 웅장한 기운이 점점 물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 하늘은 온통 보랏빛과 금빛을 동반한 붉은 노을로 가득하였습니다.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웅장한 붉은 덩어리는, 사라지는 시간에도 하늘에 거대한 잔치를 벌이듯 춤추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태어남 만큼 거대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새로운 탄생을 예고함을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떠난, 사랑하던 이들과 통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이런 체험을 환우들에게 알려주는 인생에 마지막 학교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